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0. 13. (월요일)

HLMUN 첫 회의...마약 대응 아이디어 쏟아져 - “공급망 차단은 인도주의에 역행” -

제3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 비공식 회의에서 각국 대사단은 불법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입장문 발표를 준비하는 각국 대사단들 (사진=hlmun press)

지난 1일 오후 7시 공학관 1층 1163호에서 제3회 HLMUN 1차 비공

식 회의가 열렸다. 제3회 HLMUN 의제는 ‘불법 마약 생산지 지원과 공급망 차단을 통한 국제 보건 증진’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10개 대사단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다.

네덜란드 대사단은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초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 존중과 피해 감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접근을 권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단은 공급망 차단과 생산지 지원을 병행한 국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 강화, 대체 개발 프로그램 투자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멕시코 대사단은 자국이 역사적 마약 생산·유통 거점임을 되짚었다. 펜타닐 확산을 국가적·국제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 생산·유통·소비국의 책임 분담을 역설했다. 미얀마 대사단은 단속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체 개발 확대와 국경 감시·정보 협력 등 지속 가능한 접근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인도 대사단은 필수 의약품 공급국이자 마약 생산지 사이의 복합적 현실을 언급하며, 스마트 규제와 합법 공급망 보호, 대체 개발과 국제 공조 강화 등 ‘3대 원칙’을 제안했다. 아프가니스탄 대사단은 대체작물 확대, 농업·인프라 개선, 안정적 수출 통로 확보 등 포괄적 지원책을 내세웠다.

중국 대사단은 펜타닐과 전구체 유출 방지를 위해 온라인 거래 단속, 메콩강 인접국과의 합동 단속을 대응 방안으로 내놓았다. 태국 대사단은 피해자 중심 보건·복지 정책 강화와 생산지의 합법적·지속 가능한 전환을 강조했다.

콜롬비아 대사단은 공급망 차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신 불법 마약 생산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과 대체 소득원 제공을 호소했다. 아울러 소비국에는 수요 억제 책임 강화와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마약 카르텔과 무장 단체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 금융 정보 공유를 주장했다.

한편, 호주 대사단은 불법 마약 생산지 주민들의 대체 소득 지원과 구조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급망 차단을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거래 추적 등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HLMUN은 내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비공식 회의를 가진 후, 내달 5일 공식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제3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안태현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맹민주, 김지민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39th_baekya@naver.com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